

2012年 2月  
碩士學位 論文

조선족의 정체성 및 이중 언어의  
교육방식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中語中文學 專攻)  
姜 潤 聲

조선족의 정체성 및 이중 언어의  
교육방식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dentity and the bilingual education  
system of Korean - Chinese people

2012年 2月 24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中語中文學 專攻)

姜 潤 聲

조선족의 정체성 및 이중 언어의  
교육방식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曹喜武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0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中語中文學 專攻)

姜潤聲

# 姜潤聲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李 金 恂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韓 宗 完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曹 喜 武 (인)

2011年 11月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 〈目 次〉

ABSTRACT .....	iv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3
II. 중국 조선족의 이주와 자치주 .....	6
1. 조선족의 중국이주 .....	6
(1) ‘조선족’ 이라는 민족의 개념 .....	6
(2) 중국으로의 이주와 배경 .....	7
(3) 조선족 사회의 형성 .....	12
2. 연변조선족자치주 .....	18
III. 조선족의 정체성 .....	22
1. 조선족의 정체성 .....	22
(1) 조선족 정체성의 형성 .....	22
(2) 중국 조선족 신분의 확립 .....	25
(3) 조선족의 국적 문제 .....	27
(4) 조선족사회의 발전전망 .....	29

IV. 조선족교육과 이중 언어 .....	31
1. 조선족의 현황 .....	31
(1) 조선족 교육의 역사 .....	31
(2) 조선족의 교육열 .....	35
(3) 조선족 교육의 위축 .....	37
2. 조선족 교육의 특징 .....	39
(1) 교육내용의 단일성 .....	40
(2) 교육 내용의 보편성과 민족성 .....	40
3. 이중 언어의 현황과 향후과제 .....	41
(1) 이중 언어교육의 현황 .....	41
(2) 문제점 .....	45
(3) 향후 과제 .....	47
V. 결론 .....	51
참고 문헌 .....	53

## 〈表 目 次〉

〈표 II-1〉 동북지역 조선인 인구수의 변화 .....	11
〈표 II-2〉 중국 만주의 조선인 인구 현황 .....	14
〈표 II-3〉 연변자치주 2010년 제6차 전국인구보편조사 주요수치 .....	19

## 〈圖 目 次〉

〈圖 1〉 연변조선족 자치주 .....	18
-----------------------	----

# ABSTRACT

## Study on the identity and the bilingual education system of Korean - Chinese people

Kang Yoon Seong

Advisor : Prof. Cho Hee Moo. Ph.D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Joseon nation has crossed the Yalu River and the Duman River and has immigrated into the northeastern province of China from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Joseon nation has used its national language, and has adhered to its national culture and its own educational tradition, and has maintained its national community and has survived in their own way in the environment of the Chinese Northeast and Yeonbyeon for one hundred and several decade years. The Joseon nation contributed considerably to the process of founding China including the anti-Japanese struggle and the Chinese Civil War(Kuokong neichan). Since the foundation of China, the Joseon nation can have been regarded as the most advanced nation in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level.

China is the multi-national country which is composed of 55 minority nations except Han nation as the main nation. Now, the number of the Joseon nation who reside in China is about 2,200,000 persons, which is the 13th among the Chinese minority nations.

In fact, the identity which can be expressed with the question of "Who am I?" is neither with what an individual is born nor what an individual



can develop by himself. The identity is constructed socially, and reflects cultural and social definitions, and is not formed independently of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but is formed on the basis of social process. Therefore, the national identity can be changed largely through the cultural and social basis.

The types of identities can be classified largely into individual identity and collective identity. Individual identity is about as what category and standpoint an individual defines himself, whereas collective identity means the sense of belonging and unity for the group related to himself.

Next, for the education(dual languages) of the Joseon nation, the destiny of the Joseon language can be the destiny of the Joseon nation. The Joseon nation did not compromise with external powers and continued the endeavor to keep its language in order to enhance its language and letter even in the hard times when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as severe.

Foun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enuinely emancipated the Joseon nation, who tried continuously to revive and develop the Joseon language, and then succeeded in achiev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life with its own language and letter.

In addition, as the Joseon nation lived in the environment of dual languages in a multi-national state, it reinforced the intercourse and development with neighboring nations, and enlarged the stage of our nation, and so did its best to learn the Chinese language as the Chinese current language. Therefore, the Joseon nation is the group using dual languages(Korean and Chinese) which achieved its definite performance in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ing its dual language education methods and systems.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조선족은 19세기 후반부터 韓半島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해 간 민족이다. 조선족은 1백 수십 년 동안 민족 언어를 사용하며, 민족 문화와 자신들만의 교육 전통을 고집하며 중국 東北과 延邊이라는 환경에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민족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왔다. 조선족은 抗日투쟁과 國共內戰 등 중국의 건국과정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였으며, 건국 이후에는 사회경제적인 발전 정도와 교육수준에서도 가장 앞서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족은 漢族을 포함한 중국의 어떤 민족들보다도 자신들만의 강한 민족 정체성과 자신들의 민족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중 언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조선족들의 교류 관계에서 서로의 의사소통, 가치관 등의 이해 부족으로 서로의 교류에 상당한 문제점을 주고 있다.

다행히 조선족은 중국이 1954년 9월20일에 채택된 ‘중국인민공화국헌법’과 1956년 11월 26일에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요강’ 그리고, 1984년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이르기까지 민족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교육방침에 근거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 교육계획, 여러 유형의 학교 설치, 학제, 학교 운영 형식, 교육내용, 교육용어 및 학생모집 방법을 민족자치 기관이 결정하여 교육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의 여러 민족은 자기 고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조선족 또한 조선어<sup>1)</sup> 교육과 민족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은 높은 교육열로 타민족보다 문화 수준과 지적 수준이 높으며 자긍심도 강하지만,<sup>2)</sup> 현재 중국,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자국어로 교육하지 않은 나라는 그 나라의 언어와 모국어를 함께 배워야 함으로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어 모국어 교육에 문

---

1) 조선족들은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선어, 글을 조선글 또는 조선어이라고 한다. 연변대학의 학부 명칭도 조선어문학부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 볼 때는 한국어라고 하여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조선족 중심으로 하여 조선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이은태, “중국 조선족의 우리말 교육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p. 2.

제점이 많은 것이 지금 현 실점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은 사실 개인이 타고나는 것도 아니며 개인이 혼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문화적, 사회적 정의를 반영하고,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전된다. 또한 정체성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떠나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다.<sup>3)</sup> 이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문화적, 사회적 바탕을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의 유형은 크게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범주와 관점에서 규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며 집단적 정체성은 개인과의 관계가 있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 내지 일체감을 의미한다.

집단 정체성에는 민족, 인종, 국가, 종교, 지역, 계급, 정체성이 있다. 이 중 민족 집단은 가장 원초적 집단이며 개인들이 자기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거집단으로 민족 정체성이란 “조상 대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sup>4)</sup> 현재의 조선족들은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률과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중정체성을 띄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민족인 조선족의 이주배경을 살펴보고 그들의 형성과정을 통한 정체성과, 조선어와 중국어도 사용하는 교육방식(이중 언어)에 대한 발전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 및 개선하여 조선족과 우리는 서로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동일하다는 점과 이중 언어의 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에 대해 목적을 두었다.

---

3)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2nd ed.)(New York:Norton, 1963); 홍은화,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 : 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p. 2재인용.

4) John Edwards, *Language, Society, and Identity*(N.Y:Basil Blackwell Ltd, 1985), p. 22;김향원, “제주도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1990), p. 17재인용.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의 개념과 이주배경을 근본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변화과정을 통해, 조선족들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과 동시에 조선족들의 응집력을 볼 수 있고, 자신들만의 민족을 지키기 위한 이중 언어 교육과, 특징들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

이 연구에서 연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내용은, 조선족의 이주와 지리적 명칭이다. 특히 조선족의 중국으로의 이주배경과 그 형성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조선족의 자치주인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중국이 광범위한 나라 속에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한족이 총인구의 92%를 차지하고 나머지 8%가 소수민족으로 나누어져있다는 점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민족역사와 개념에 대한 국내의 단행본들과 민족 이론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참고로 할 것이며, 특히 다민족 사회에서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 그 유지 조건에 관한 학회의 발표 논문들과 국내의 연구 단행본, 석·박사 학위 논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족의 조선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 의의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관심이 부족하고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실태보고 및 논문들의 자료들이 많이 빈약하지만, 이 논문을 참고하여 조선족들의 이중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많은 연구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둘째, 연구 내용은 이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조선족들의 정체성 이다.

중국의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조선인들이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의 한 개 소수민족으로 된 것이다. 중국내 조선족 사회 형성의 역사는 약 1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조선족 사회의 형성은 우리 민족의 근·현대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내 연변지역의 조선족 사회의 형성 과정을 크게 4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조선족 사회의 특징을 알아보겠다. 이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배경인 조선족 사회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조선족들의 국적문제 및 발전전망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셋째, 연구 내용은 조선족들의 교육과 이중 언어이다.

조선족 교육의 발전과 특징을 교육내용의 단일성 / 보편성 / 민족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족 이중 언어 및 교육을 조사한 국내의 연구 자료들을 인용 할 것이다. 연구 자료들의 내용 중 주로 조선족 교육 발전과 이중 언어의 현상 및 문제점을 분석한 항목들을 참고로 인용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신문 등의 보도 자료를 통하여 중국현지의 조선족들의 생각과 인터뷰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들을 참고로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조선족들의 정체성을 연구 분석의 중심으로 두었으며, 특히 민족 정체성 형성을 겪으면서 조선족들이 자신들만의 민족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언어교육이 조선족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는 것 또한 이 연구의 핵심 질문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앞에서 밝힌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 하도록 하겠다.

이 연구는 기본적인 문헌연구법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나 역사적인 문헌, 이미 발표된 통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기초로 하겠다.

조선족의 정체성과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 자료와 단행본을 분석 할 것이다. 그리고 학회의 발표, 논문지, 학술집 등도 참고로 살펴 볼 것이다.

조선족의 정체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조선족의 이주배경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며, 조선족교육은 발전과, 교육의 특징, 이중 언어교육의현상과 발전과제로 나누어 분석하여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중국의 각종 통계자료와 신문자료인 연변일보, 흑룡강 신문의 기사내용을 참고할 것이다.

문헌 분석의 범위는 조선족에 관한 중국과 한국의 문헌자료로 제한하며, 조선족의 형성 과정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중국 자료 및 기사와 한국에서 분석한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조선족의 정체성과 이중 언어의 교육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조선족의 정체성과 교육에 관한연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자료들 중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자료와 문헌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조선족 이중 언어 교육의 실태와 교육 관련 의 요소들의 영향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갖춘 논문들은 자료가 빈약하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기존의 자료들 중 조선족 정체성과 이중 언

어에 관한 논문 및 신문자료집 등을 참조하여 조선족들의 정체성과 이중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파악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II. 중국 조선족의 이주와 자치주

총 면적 959만km<sup>2</sup>의 광대한 중국 대륙에는 13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가운데 92%가 한족이며 나머지 8%가량이 55개의 少數民族이다.<sup>5)</sup> 한족에 비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총칭하여 소수민족이라 부른다. 소수민족 중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민족은 壯族·滿洲族·回族·維吾爾·苗族·彝族·朝鮮族 등 15개 민족이고, 13개 민족이 10~100만 명 사이이며, 나머지 27개 민족은 10만 명 이하이다.

소수민족의 인구수는 한족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이지만, 전 국토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며, 특히 邊疆지역에 거주하여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므로 중국의 산업화와 현대화 정책 추진에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하여, 국가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들이 가진 문화적 특성을 보호하면서 경제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 조선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조선족의 이주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조선족의 중국이주

#### (1) ‘조선족’이라는 민족의 개념

조선족이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중국내 조선족의 직접적인 형성은 근대와 현대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현재 중국내 조선족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은 민족적 차원에서 근·현대 조선족의 고유한 특징과 전통을 가지고

---

5) 소수민족으로 분류된 55개의 소수민족 중에는 지금까지 미확인 상태에 있는 인구 1,000명 미만의 소수 민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있으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중국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다.

둘째, 조선족은 국적과 법률적 차원에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민족 성원이다. 따라서 조선족은 중국 법이 인정하는 소수민족공동체이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내 조선족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 성원으로서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적인 특징을 가진 특수한 측면이 있다. 조선족의 개념을 정리하면 민족적으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법률적으로는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sup>6)</sup>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조선족은 150여 년 세월 동안 중국 내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이 가진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교육과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집단적 거주지역의 확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근거로 해서 민족적 독자성을 지닌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현재 조선족 사회의 성립은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족의 역사는 이주 초기부터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보존한 우리의 언어, 역사, 문화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학교와 가정을 통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한 중국내 조선민족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조선족들이 간직한 민족 전통과 교육적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주민족이면서도 중국내 조선족은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내 조선족의 교육과 문화를 중국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많은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선족의 교육과 문화는 우리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형성된 우리 민족의 교육과 문화인 것이다.<sup>7)</sup>

## (2) 중국으로의 이주와 배경

중국과 조선은 강을 사이에 한 인접국으로서 예로부터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경일대의 두 나라 백성들은 서로 국경을 넘나들며 採蓼, 수렵, 무역활동에 종사하였다. 조선북부의 농민들은 처음에는 사냥을 하고 장사를 하다가 후에는 농

6) 연변사회과학연구소편 “중국 조선족의 역사·문화 산책”(연변사회과학연구소 2002) p. 50.

7) 채취균 “조선족 교육의 형성과정과 현안문제 고찰”, 교육철학 제29집(2006), pp. 180-181.



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朝耕暮歸(새벽에 몰래 강을 건너가 경작지를 일구고 밤에는 돌아간다)의 방법을 취하였고 후에는 春耕秋歸(봄에 경작을 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의 방법을 취하였다가 명말 청초로부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중국에 건너 온 조선인들의 일부는 점차 중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로 조선 북부 거주민들이 남의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면면히 이어지다가 19세기 중엽 조선반도에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인해 반도 북부의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경내로 대거 이주하면서 조선인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다. 대량적인 집단이주는 1895년 청나라의 백두산 주위지역에 대한 ‘封禁令’이 해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하여 지금의 중국 땅<sup>8)</sup>으로 건너와 땅을 개간하여 수전을 만들고 부락을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집중거주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의 조선족은 대대로 중국 땅에서 살아온 토착민족들과는 달리 한반도에서 이미 近代 단일민족인 조선민족으로 형성된 뒤 중국에서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조선민족과 혈통, 언어, 문화, 감정 등 여러 면에서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족은 중국 땅에 이주해 와서 다른 민족과 함께 살면서 동북 국경지역의 疆土를 개척하고 일본제국주의와 기타 외래침략, 봉건세력과 국민당정부를 타도하는 혁명을 같이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조선족은 한민족의 속성과 중화민족의 속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sup>9)</sup>

이주초기의 주민은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 등 조선반도 북부일대의 주민들로서 18세기 이후부터 조선북부의 농민들은 살길을 찾아 청나라의 엄격한 “봉금령”을 무시하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그 인근지역에 마을을 구성하여 양강 유역에 조선족 촌락들이 많은 분포를 이루기 시작하여 점차 지금의 연변일대와 남만주일대를 중심으로 조선족 집거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백두산 일대를 龍興之地<sup>10)</sup>로 간주하고 300여 년간 봉금정책을 취해오던 청나라도 19세기 말엽에 이르러 동북변강을 개발하고 러시아로 인해 발생하는 동북변경지역의 우환을 없애기 위하여 봉금을 해제하기에 이르렀고 변강개발에 조선인의 힘을

8)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北으로는 흑룡강성; 西로는 길림성 길림, 통화지구; 南으로는 요녕성으로 뻗어나갔다. 이렇게 중국 東北三省에 조선족의 집중거주지가 형성되었다.

9) 노청석 “중국 조선족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2007 중국해양대학교 법정학원교수, 법학박사 pp. 387-388.

10)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을 갖춘 곳이라는 뜻으로, 왕업이 이루어질 조짐이 있는 곳을 이르는 말.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한때는 두만강이북 해란강 이남의 약 700여리의 지역을 한민 개간지로 제정하는 등 우혜 조건으로 조선인의 이주를 환영하기도 하였다.

20세기초엽, 을사보호조약의 체결, 조선군대의 강제해산, 한일합병 등 일제의 본격적인 조선침략으로 조선의 국운이 날로 기울어져 가는 형세 하에서 민족의 자유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해외독립운동기지를 구축하고자 수많은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중국의 동북일대와 러시아 연해주일대에 망명하였다. 일제의 경제적인 착취와 정치적 압박에 못 이겨 많은 백성들도 동북으로 이주하였다. 1920년에 이르러 이주민 수는 45만 9400여명에 이르렀으며 1930년에는 63만을 넘었다.<sup>11)</sup>

‘9·18’ 사변 후 일제는 동북의 개발에 조선반도의 인력을 활용하고자 백만 이주계획을 제정하고 강제적으로 조선인을 이주시켜 집단 부락, 안전농장 등 형식의 촌락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이주민들의 출신지역도 함경도와 평안도를 벗어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남부일대까지 포함한 전 지역으로 넓혀지게 되었다. 당시 인구가 희소한 흑룡강성 북부는 일본이 강제이민을 실시한 주요 지역의 하나로, 1940년도에는 한 번에 눈강, 용진 등지에 이주해간 조선인만도 2,810여 호에 달하였다. 일제의 강제이민으로 동북의 조선족인구는 날로 늘어났으며, 1945년에는 216만 3천여명에 이르렀다.

이를 정리하면, 중국의 조선족, 그들은 19세기 후반기로부터 기황을 피해, 일제의 식민통치를 피해,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이주에 의해 중국의 동북에 이주하였던 조선인들의 후예들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조선족의 배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선족 정착의 역사적 배경(동북 변방의 개척과 조선족 집거구의 형성시기)

중국과 조선은 지리상으로 서로 인접된 나라이며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이기에 오랜 옛날부터 중국에는 많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으며 중국의 조선족의 이민역사는 근 150여 년이나 된다.<sup>12)</sup> 더욱

---

11) 박금해 “중국 조선족사회의 현실과 바람직한 미래상”, 중국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교수 2004 p. 12.

12) 조선족들은 봉금책으로 수백년간 묶여두었던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했으며 청나라 정부의<弁發易服, 歸化入籍>의 동화정책과 중화민국시기 奉系軍閥의 민족기와, 위민시기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등과 싸워 민족생존권리를 확보해야 했다. 김종국, 『중국 조선족사 연구 1』, (서울대학교 출판부1996), p. 112.

이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족 거주지역은 오랫동안 반일 무장투쟁의 주요한 근거지 및 전쟁터가 되었기에 조선족의 역사는 말 그대로 처절한 민족의 수난사이자 생존사였다.

조선족의 이주는 일찍이 명말 청초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이후 부터 조선조의 부패통치와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선에서 허덕이던 북부 조선인들이 대량 이주하여 점차 연변을 중심으로 하는 집거구를 형성하였다.

조선족들이 처음 이주한 지방은 압록강대안 동변도 지구였다. 1870년을 전후하여 집안현(縣)내의 거주자는 이미 100여 호에 달하였고 임강, 집안, 훈강양안 산간지대의 거주민은 거의 모두가 조선인들이었다.<sup>13)</sup>

1900년 이후 이주민의 수는 급격히 증가되어 1905년 변 외 북로와 남로의 이주민은 44,580명이었고 1911년에 와서는 58,950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압록강 북안의 조선인이주민부락은 9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28개면, 32개의 촌으로 늘어나 점차 압록강 북안 조선족 집거구를 이루게 되었다.

두만강 북안은 압록강북안보다 뒤늦게 이주하기 시작하였지만 1822년 봉금을 해제하고 1885년 두만강 길이 700리, 너비 40~50리 구간을 ‘한족전문개간구’로 확정 한 이후 이주민수는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후 1894년 화룡육총상국 관할구역 내에 있는 조선인은 5,590호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당시 이곳 거주민수의 99%를 차지한다고 하였다.<sup>14)</sup>

1910년 한일강제합병을 전후로 하여 한국의 많은 우국지사들도 중국으로 건너오게 된다. 그리하여 이때부터의 이민은 단순한 생존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나라를 찾기 위한 정치적 망명의 성격을 띤 이민자도 적지 않았다.<sup>15)</sup>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이주민 수는 급격히 증가되어 1910년에는 109,500명의 이주민이 있었고 1910년 9월부터 1911년 말까지의 기간에만 해도 이주해온 조선인은 19,000명에 달하였다. 이렇게 되어 두만강 700 리 북안 40~50리 너비의 국경지대는 조선인들에 의하여 독

---

13) 1875년 청조의 ‘성경동변간 광지개간조례’ 반포이후 1897년까지 청호, 환인, 관전, 흥경 등 현에 이주한 조선인은 이미 37,000명이나 되었고 28개 행정면까지 실시하였다. 최홍빈, “중국 조선족의 어제와 오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10호1997, p. 407.

14) 최홍빈, 앞의 글, p. 407.

15) 당시 중국 동북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인구집계를 보면 1907년에 7만명 이었다면 한일강제합병을 선포한 1910년에는 10만명을 초과하였고 1916년에는 20만명을 넘었으며 1920년에는 45만 9천명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이 것을 보면 이때부터 중국으로의 이민은 단순히 살길을 찾아 온 것이 아니라 일제 통치를 피해오거나 반일을 위해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국, 앞의 책, p. 115.

차지되었고 남강, 서강일대에는 조선인들이 절반이상이 차지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0년 이후 강제합병이후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무단통치와 토지약탈로 인하여 수많은 파산농민과 애국지사들이 동북지방으로 이주하였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이르러 일제가 실시한 강제이주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인의 수는 지속적이고 빠른 증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분포지역도 압록강, 두만강 북안에만 제한되지 않고 멀리 북만주와 내몽골 지역에 이르는 전반 동북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sup>16)</sup>

조선족의 이주사는 개척사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땅을 개척한 개척자로서 동북의 농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조선족들에 의한 水田개척으로 1875년 총화현에서 조선족 농민들이 벼 재배에 성공하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동북수전 개발의 첫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7)</sup>

<표 1> 동북지역 조선인 인구수의 변화(단위 명)

연 도	1911년	1917년	1922년	1930년
인구수	169,450	358,428	515,869	607,119
연 도	1939년	1941년	1944년	1945년
인구수	854,441	1,065,523	1,658,572	2,160,000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세계시장에서 쌀 수요량이 늘어나고 쌀값이 폭등함에 따라 동북의 벼농사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와 1921년 전 동북 수전 면적은 30,323町步, 벼 생산량 838,920톤으로, 1930년에는 수전 면적 98,140정보, 벼 생산량 1,540,350톤으로 각각 증가되었다. 당시 일제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집단이민’, ‘개척이민’으로 조선 3남 지방 파산농민들이 동북 각 지방에 이주함에 따라 동북의 벼농사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19세기말부터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이르러 조선족 집거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집거구의 형성은 반일민족독립운동을 대중적, 경제적,

16) 남연주,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조선족을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p. 33.

17) 연변지방에서는 1890년을 전후하여 두만강연안과 해란강 연안에서 벼농사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벼농사는 남만과 연변지방에 점차 파급되었다. 최홍빈, 앞의 글, p. 409.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고 조선족 고유의 문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게 하였다.<sup>18)</sup>

## 2) 조선족의 반일민족해방 투쟁배경시기

이주 이후 조선족들은 청 말 중화민국초기의 민족 압박정책을 반대하는 반봉건 투쟁을 진행하였다.

항일 투쟁 초기 항일 유격대와 항일유격근거지가 창건된 지방은 모두 조선족 집거구들이었고 당 책임자와 유격대 책임자 그리고 유격대원들은 대부분 조선족들이었다. 예컨대 동만의 4개 현(縣)만 보더라도 유격대원 중 조선족이 90%이상을 차지하였고 남만유격대 230명 중 조선족이 80여명이었으며 북만의 영안유격대는 대부분 조선족으로 구성되었다.<sup>19)</sup> 특히 조선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동만에서 창건되고 발전된 항일 연군 제2군내의 각급 지휘관과 전투원들의 다수는 조선족이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주요한 활동무대가 중국 동북지방이었던 만큼 조선인 부대의 단독 활동보다 중·조 연합부대인 항일연군의 명의로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이 지휘하는 부대는 중국인 지구에서 활동할 때에는 항일연군의 명의로, 조선족지구에서 활동하거나 조선국내에 진주 할 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명의로 활동하였다.<sup>20)</sup>

1945년 8월 소련이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실시하고 동북에 진출 하고자 할 때 항일 연군은 하얼빈, 장춘, 심양의 세 개 지방과 56개 지점에 진출하여 중국 관내로부터 동북으로 진출하는 팔로군, 조선의 용군과 함께 일제에 대한 최후의 일전을 벌여 일제를 패망시키고 후에 항일전쟁의 승리를 얻었다.

## (3) 조선족 사회의 형성

중국의 조선족은 역사상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한족들이 중국에 정착하여

---

18) 남연주, 위의 논문, p. 34.

19) 동만의 최강, 김일성, 신춘, 방상범, 김은식, 김일환, 남만의 양립, 이흥광, 이동광, 북만의 최석천, 김책, 이학복, 이복림, 허형식 등은 최초의 항일유격대와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 큰 몫을 한 걸출한 지도자들이었다. 최홍빈, 앞의 글, p. 415.

20) 최홍빈, 앞의 글, p. 416.

중국의 한 개 소수민족으로 된 것이다. 중국내 조선족 사회 형성의 역사는 약1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간도<sup>21)</sup>라고 일컫는 지역에 조선족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족 사회의 형성은 우리 민족의 근·현대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중국내 연변지역의 조선족 사회의 형성은 크게 4시기로 나눌 수 있다.<sup>22)</sup>

제 1기는 1860년대부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1910년 한일 합병 이전 시기로 주로 농민들이 이주하는데 당시 조선 농촌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주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제 2기는 일제의 점령시기부터 일제에 의해 만주국이 성립되기까지로 1910년부터 1932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초반에 급격한 인구의 이주를 볼 수 있는데 종전의 농민들의 이주와 달리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망명이민이 주를 이룬다. 제 3기는 1932년부터 1945년으로 일본이 만주국을 세운 후 한반도로부터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켜 만주의 개척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자발적인 이주와 더불어 가장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던 때이다. 제 4기는 일제가 패망한 1945년부터 1952년 연변 조선민족 자치구가 성립된 시기까지로 현재 조선족의 바탕이 되는 정착기에 해당한다.<sup>23)</sup>

만주족은 청나라를 건립한 후 동북 지역은 조상 발원지로 封禁정책을 실시하고 다른 민족의 유입을 금지하였다.<sup>24)</sup> 19세기 중엽 이후 청나라에서 혼강유역 벌목 사업에 한족을 고용하면서부터 한족들은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860년대 한반도 지역은 연속된 흉년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곤란하였으며 특히 함경도, 평안도에서는 그 피해가 엄청났었다. 그리하여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869년대 흉년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때를 전후해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의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한족들의 거주가 본격화되었으며 1897년 통화, 환인, 관전, 신빈 등 지역에 이주해온 한족들이 이미 8천여 가구의 3만여명에 달하였고 1905년에는 장백, 임강, 집안, 안동, 불성과 관전 등 지역에 거주한 한족 농민들이 9천 9백여 가구가 되었다.<sup>25)</sup>

21) 현재의 연변자치주에서 둔화현이 제외되는 지역.

22) 이광규 “재중한인”(서울: 일조각, 1994), p. 3.

23) 고지영, “중국 조선족 정체성 변화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p. 22.

24) 정신철, “중국 조선족”(서울: 신인간사, 2000), p. 13.

25) 朝鮮族簡史編輯組, “朝鮮族簡史”(延邊人民出版社, 1986)장능실, “재중국 조선족연구”,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 32제인용.

제 2기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1910년 일제의 조선 합병은 조선인의 만주 지역의 정착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게 된다. 이동의 규모가 커지고 이동의 동기도 다양해지면서 농민들의 생활고로 인한 원시적 이동에서 정치적 이동으로 전환되었다. 조선이 해방되기 전까지 만주 지역으로의 조선인의 이동은 이 시기부터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이시기 이주의 원인은 일제의 핍박으로부터의 정치적 도피를 포함하여 농토를 잃은 농민들의 대거 이주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중국 만주의 조선인 인구 현황(1910 - 1944)<sup>26)</sup>

(단위 : 명/ %)

연 도	인구수	연평균 성장률	성 비 <sup>1)</sup>
1910	220,000 <sup>2)</sup>	-	-
1912	238,403	-	13.4
1915	282,070	3.36	127.1
1920	459,427	9.76	132.6
1925	531,973	2.93	119.4
1930	607,119	2.64	115.9
1935	826,570	6.17	115.1
1939	1,450,384	11.24	119.5
1941	1,442,428	-0.55	118.3
1944	1,658,572	3.35 <sup>3)</sup>	-

출처 : 인구는 각 연도의 동일 날짜의 것으로 간주하여 성장률을 계산하였음.

(1) 성비는 만주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총인구에는 관동주에 거주하는 극소수의 조선인이 포함됨.

(2) 일본 통계로부터의 추정 값 임.

(3) 1940-1944년도 평균임.

자료 :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입시국세조사보고』, 1940 : 만주국 경무총국,

『만주제국 현주민구통계』, 1941 : 일본 외무성 동아국,

『만주국급 중화민국 재류본방인 급 외국인 인구통계표』.

26)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 27.

위 표를 근거로 하여 보면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만주 지역에서 조선인 인구는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다. 일제 침략 직후 10년 동안 만주의 조선인 수는 배 이상 늘어 1920년 말에는 46만 명에 이르게 된다. 특히 독립운동이 있었던 1915년에서 1920년 사이에는 연평균 인구 증가가 거의 10%수준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 직전수준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일제의 침략과 함께 급증하는 조선인의 만주로의 유입은 일제의 침략과 그로인한 독립 운동이 이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당시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한, 1915년에서 1920년 사이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판단의 간접적인 근거로 생각할 수 있다.<sup>27)</sup>

이러한 조선에서 만주로의 이주 행렬은 일본의 무단 통치가 실시되었던 1919년 3·1운동 직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초창기에는 만주로 이주한 항일 애국지사들은 즉각적인 항일투쟁보다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양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 이상설, 이동녕, 여준 등이 용정에 세운 서전의숙을 비롯하여 창동학교, 광성학교, 명동학교, 정동학교, 길신 여학교, 봉명 학교 등이 건립되었으며,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들도 많이 있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06년 말까지 연변 5개 현에 꾸려진 사립학교만 하더라도 158개소였는데 그 학생 수는 3,879명이었다.<sup>28)</sup>

제 3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는 일제에 의해 1932년 만주국이 성립되고 일제는 조선인들을 만주 지역으로의 정책적인 이주를 추진하였다. 만주 사변 이후, 만주의 대부분을 점령한 일본이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만주를 통치하게 되자, 이곳에 거주하는 한족들은 지하 활동을 통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만주의 황무지 개간 및 한족 공산당 중심의 지하 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서 파산된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이 조선인지도요강을

---

27) 고지영, 앞의 논문, p. 24.

28) 조율호·박문일 주필, “21세기로 매진하는 중국 조선족 발전방략연구”(심양, 요녕민족출판사, 1997), p. 37.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선 총독부는 만주 조선족 개척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동북 지역의 39개 현을 조선족의 이민 구로 확정하고 1939년부터 매년 조선으로부터 파산된 농민을 본격적으로 이주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이주 계획에 의거하여 1937년 ~ 1940년까지 이른바 집단 개척민으로 동북각지에 이민시킨 한족들은 만여 가구에 달하고 이외에 1939년에 집합개척민 형식으로 간도, 길림, 봉천, 통화, 목단강 등 지역에 800여 가구를 이민시키고 1940년에는 통화, 길림, 간도, 금주와 빈강 등, 성에 1700여 명 인구를 이민시켰다.<sup>29)</sup>

이 시기에는 일본의 강제 이주 외에도 자발적으로 중국에 온 사람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약 3만 여명의 한족들이 자의적으로 중국의 화북, 화중, 화남 등 여러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 의한 한족의 강제 이주를 포함한 만주 지역으로의 한족 이주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1939년 말에 중국 동북의 한족 수는 116만여 명에 달하고 1944년에는 165만여 명에 달하였으며 1945년에는 광복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귀국함으로써 1949년에는 111만여 명의 수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맞이하게 되었다.<sup>30)</sup>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제 4기는 인구의 증가보다는 이주한 조선족들의 중국 정착기로 볼 수 있다. 조선의 해방은 단기간에 일본과 만주로부터 조선의 대규모 귀환 이동을 가져 왔다. 일본에서 귀환한 인구는 총 150만 명 정도로 그 가운데 95% 가량이 남한 지역으로 돌아왔다. 만주로부터 귀환한 조선인은 총 170만 명 가운데 70만 명 가량으로 그 가운데 남한 지역으로 귀환자가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만주 거주자 중 남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그리고 간도 이외의 지역에 분산 거주하던 사람들이 주로 귀환했음을 뜻한다. 1953년 중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추계해 보면 간도지역으로부터는 조선인 거주자의 25%정도에 달하는 15 만 명이 그리고 다른 만주지역으로부터는 50%에 달하는 55만 명이 귀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간도 지역 조선인과 기타 지역 거주자의 비율도 각각 50%정도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한마디로 귀환은 비교적 중국을 늦게 이동하여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조선인들이 덜 밀집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sup>31)</sup> 해방 조선으로 귀환하지

29) <http://www.chungdong.or.kr/highroom/work/web17/web17> - 01.htm

30) 정신철, 앞의 책, p. 19.

못한 조선족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륙 통일과 더불어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받아 중국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중국 내의 조선족으로 규정된다. 1940년 중반까지 계속되었던 중국으로의 이주가 끝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소수민족정책에 의해 조선족 민족은 서서히 정착하게 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조선족 자치라는 형태로 제외동포사회가 꾸려졌는데, 이는 그 이전에 반제 항일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중국이 허용하게 되었다. 1927년 10월 성립된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는 항일투쟁의 선봉에 있는 한민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1930년 중국 중앙의 지시에 따라 성위원회 소속의 소수민족운동위원회의 명의로 ‘재만 한국노동군중운동결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에서는 조선족을 처음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였다.<sup>32)</sup>

1931년 11월 강서성 서극에서 소집된 제 1차 중화노동소비에트대회에 조선족 대표로 최정무가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 문제결의안」에서는 조선족을 몽고인, 서장인과 함께 중국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대한족주의를 반대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민족평등정책을 천명하였다.<sup>33)</sup> 그 후 1934년에 소집된 제 2차 회의에서는 양림을 비롯한 수명의 조선족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양림은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sup>34)</sup>

1949년 9월 북경에서 소집된 전국 제1기 정치협상회의에 주덕해가 120만 조선족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 강령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여러 민족이 함께 창건한 다민족국가이다.’, ‘중화인민공화국경내의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마땅히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해야 하고 민족 집거구의 인구의 다소와 지역에 따라 분별 있게 각종 민족 자치기관을 건립해야 한다.’ 고 선포하였다. 이로부터 조선족은 법률적으로 승인받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들은 공동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요강’(1952년 8월

31) 권태환, “세계의 한민족:중국”(서울: 통일원, 1996), p. 44.

32) 고지영, 앞의 논문, p. 26.

33) 이인순, “중국 조선족에 대한 교류 지원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p. 3재인용.

34) 위의 논문, p. 3재인용.

35) 박창욱, “중국 조선족의 역사와 금후 전망”, 『한민족공동체』 (서울: 해외민족연구소, 1993), pp. 155-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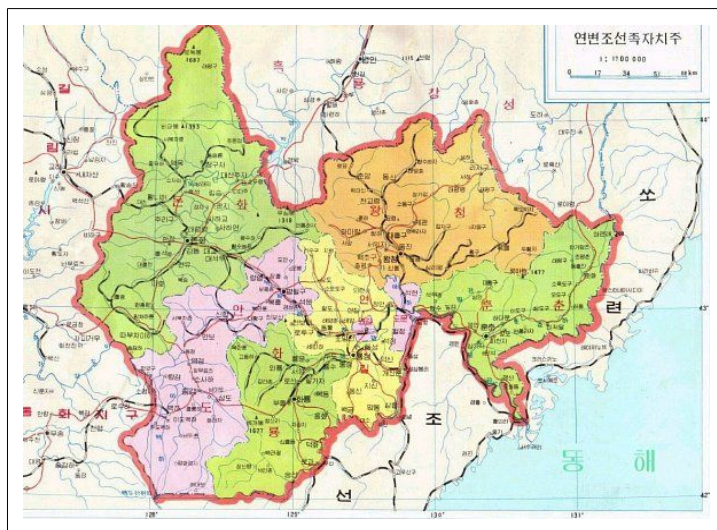
9일 발표)에 근거하여 중앙인민자치기구를 설립하고 민족구역 자치를 실시하였다. 1955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자치국을 자치주로 개편하였다. 1958년 9월 15일에는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이 건립되었고 길림·흑룡강·요녕·내몽골 등지에는 42개 조선족 향이 앞을 다투어 건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조선족들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 정책 하에 민족 평등의 권리를 갖게 되었고, 주·현·향에 이르는 민족구역자치를 실현하여 조선족 민족의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sup>36)</sup>

## 2.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인구가 13번째로 많은 조선족은 중국 동부 지역에서 대도시에게까지 광범위 하게 분포 되어있다.

현재 조선족은 연변 조선족자치주와 장백 조선족자치현 등 두 개의 자치지구와 44개의 민족향, 908개의 조선족촌을 이루고 있다.

(그림 1)



(연변조선족자치주)

36) 최홍빈, “중국 조선족의 어제와 오늘”, 『한국민족문화』 (부산: 부산대학교출판사, 1997), p. 417.

‘연변(延邊)’의 정식 명칭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이다.

연변은 중국 길림성의 동남부에 있는 중국 내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이다. 延吉, 圖們, 敦化, 和龍, 龍井, 琿春의 6개 시와 汪清, 安圖의 2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선족을 비롯해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동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북한과 맞붙어 있는 중국의 행정구역이다. 면적은 42,700km<sup>2</sup>로 길림성 총면적의 1/4정도이며, 남한 크기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 ‘연변’이란 지명은 延吉의 延과 변방의 邊을 합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연변은 ‘연길 주변’을 통 털어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구보편조사사례’ 및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연변자치주통계국은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제6차 전국인구보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변자치주 2010년 제6차 전국인구보편조사 주요수치<sup>37)</sup>

지역	인구(명)	비중(%)	인구밀도(명/평방킬로미터)
延吉市	563,154	19.57	24.79 / 322
圖們市	134,498	5.99	5.92 / 117
敦化市	483,631	21.76	21.29 / 40
琿春市	241,861	9.55	10.65 / 47
龍井市	177,295	11.84	7.80 / 80
和龍市	189,597	9.74	8.35 / 37
王清縣	255,499	11.58	11.25 / 28
安圖縣	226,065	9.97	9.95 / 30

(1) 전 주 상주인구

전 주 상주인구는 227만 1600명이다. 제 5차 전국인구보편조사시인 2000년 11월 1일 때의 220만 9646명에 비해 10년 동안 6만 1954명이 늘어나 2.80%성장하였으며, 년 평균 증가율은 0.28%이다.

37) 연변일보 2011.5.19

## (2) 가족구성 인구

전 주 상주인구 중 도합 84만 8380호이고 가족구성 인구는 219만 4868명이며 평균 가족구성인구는 2.59명으로 2000년 제5차 전국인구보편조사시의 2.99명에 비해 0.40명 줄어들었다.

## (3) 성별구성

전 주 상주인구중 남성은 115만 616명으로서 총인구의 50.65%, 여성은 112만 984명으로서 총인구의 49.35%를 차지한다. 총인구성별비례(여성 100명 기준, 남성대 여성비례)는 2000년 제 5차 전국인구보편 조사때의 105.50에서 102.64로 줄어들었다.

## (4) 연령구성

전 주 상주인구 중 0-14살 인구는 22만 1385명으로 총인구의 9.75%, 15-64살 인구는 182만 6675명으로 총인구의 80.41%, 65살 이상 인구는 22만 3540명으로 총인구의 9.84%를 차지했다. 2000년 제5차 전국인구보편 조사시에 비해 0-14살 인구비중은 7.46% 줄어들었고 15-64살 인구비중은 3.94%상승했으며 65살 이상 인구비중은 3.52%늘어났다.

이 처럼 중국 내에서의 소수민족 부분에서도 광활한 범위 속에 속하고 있는, 조선족은 97%이상이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와 인접하여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민족이다.

위의 현황 같이 연변의 총인구는 220만 명 정도이며, 그 중 조선족이 45%인 100만 명 정도으로써 중국 전체 조선족의 45%가 연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그 비중을 따라 자치구와 자치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연변도 1952년 자치구로 편성되었다가, 다시 1955년에 자치주로 변경되어 조선족의 민족자치가 인정되었다. 延吉은 연변 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며 현재 인구 56만 명 정도로 한족과 조선족 등이 살고 있고 그 중 조선족이 50% 정도이다.

‘東北三省’은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을 말하며 중국의 동북부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최대도시가 遼寧省의 瀋陽(옛날 이름은 奉天)으로 인구 400만 명이며, 그 다음이 黑龍江省의 哈爾濱(250만), 吉林省의 長春(200만) 등이다. 동북3성은 과거에는 만주로 불렸던 지역이다. 현재 인구 약 1억 명으로 한족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의 소수민족들이 거주한다.

동북3성은 대다수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 한민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한족과 한국의 한민족 및 여러 북방 민족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진 곳일 뿐만 아니라 중국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여진족)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동북3성은 청나라 멸망 이후에는 중화민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만주사변으로 한때 일본에 점령되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괴뢰 국가인 만주국이 세워지기도 했으며 1949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38)</sup>

이처럼 조선족은 조선 말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또한 일제강점기시대에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민족 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연변 및 동북 3성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독립 운동의 시초이자 근거지이며, 또한 조선족 민족교육의 자리로써 연변은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

38) <http://blog.daum.net/baramjaewildflowers/18351942>.

### Ⅲ. 조선족의 정체성

#### 1. 조선족의 정체성

##### (1) 조선족 정체성의 형성

###### 1) 중화민족 의식의 형성

마오쩌둥은 ‘중화민족은 한족과 수십 종의 소수민족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한바 있다.<sup>39)</sup> 이는 중화 민족이라 함은 한족과 중국 경내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집단을 포함한다.

현재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족은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타 55개 민족은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과 대비하여 기타 55개 민족을 소수민족이라고 한다.

중국공산당은 1920년대부터 조선족들을 중국혁명 세력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토지소유권과 거주권을 부여하였다. 1927년 10월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봉건군벌, 지주의 압박과 착취를 받은 민족으로서 만주의 혁명적 농민의 한 부분이며, 전투력이 있는 우군이다’라고 인정하여 조선족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한다. 특히 1931년 일본이 ‘9·18사변’으로 만주점령 이후 중국공산당은 조선족들에게 공산당 영토 밑에서 공동의 무장 항일을 호소한다. 중국공산당 만주위원회는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였으며, 조선족은 반드시 여러 민족들과 함께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동북에서 몰아내는 것이 목전의 임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족들은 중국공산당의 호소에 응하여 만족해방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각종 반일조직도 건립하였다. 조선족들의 혁명조직은 ‘반일회’, ‘반제동맹’, ‘농민협회’ 등 들이 있다. 당시 조선족들은 공산당과 함께 ‘반제전선’등을 출판물로 하여

39) 吳士民, “民族問題概論”(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7), p. 154.

항일구국 사상을 선전하였으며, 무장투쟁에도 적극 참여 하였다. 1933년 초에는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 4개 현의 유격대를 ‘중국노동홍군32군 동만유격대’로 편성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32년 하반기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의거하여 동만특위도 다른 지역과 같이 연변에서 소비에트정권과 근거지를 건립하였다. 따라서 소비에트화한 지역에서는 중앙소비에트의 헌법과 각종강령, 그리고 법령을 현지 구체적인 실정에 의거하여 정치·경제·문화 정책을 채택하였다. 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 민족평등 정책은 일제와 봉건지주들의 민족 압박과 착취를 받은 조선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

1945년 9월 중국공산당은 동북에서 ‘화북항전에 참가한 조선의용군을 제외한 동북의 조선 거주민은 일반적으로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을 중국국민으로 인정하여 기타 다른 민족들과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 주었다. 1947년 중국공산당은 ‘토지법대강’을 제정하여 ‘봉건적 토지제도를 철폐하고,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돌리는 토지제도를 실시하여 노동인구에 따라 토지를 평균 분배한다.’고 규정한다 있다.

중국 공산당의 토지 개혁은 철저한 민족평등의 원칙 아래 집행되었다. 토지는 모든 민족에게 평균적으로 분배 되었으며 각 민족의 생산 습관과 특성을 감안하여 분배되었다. 즉 조선족 농민에게는 논이 더 많이 분배되었으며 한족 농민들에게는 채소밭이 더 많이 분배되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토지 개혁 과정은 조선족의 적극적 참여와 충성심을 유발하였다.<sup>40)</sup>

중국의 조선족들은 장기간의 항일전쟁, 반봉건 투쟁과 만주벌판을 개척하는 가정에서 각 민족들과 상호 학습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형제와 같은 우의를 쌓았으며,<sup>41)</sup> 또한 이러한 투쟁 속에서 여러 민족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운명공동체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조선족 민족 정체성의 확립

정체성이란 한 인간에 대한 정의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

40) 고지영, 앞의 논문, pp. 29-31.

41) 조선족과 현재의 여러 민족들은 장기간의 공동의 생활활동과 반제국주의, 반봉건 투쟁 과정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형제애를 쌓았다. 조선족은 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 만 등 민족들의 도움을 받았다. 한·만 농민들은 조선족농민들과 함께 수전개발 과정에서 벼 재배 기술을 배워 夏州河, 住河에 논을 개발하였다. 朝鮮族史編寫, 『朝鮮族 簡史』(延吉: 延邊民族出版社1986), p. 24.



답이다<sup>42)</sup>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정책으로 중국의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조선족자치의 실현은 조선족들에게 두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그 하나는 중국의 공민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의 공민입과 동시에 중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성립은 조선족에게 안정된 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조선족의 정체성 확립은 조선족들이 중국 국민으로 동일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신들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동일시함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이 추진한 일련의 정책은 조선족 정체성의 형성을 촉진하였다.<sup>43)</sup>

1992년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신의 조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중국’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관리는 95%, 중학생 80%, 대학생은 60%, 농민은 30%였으며, 평균 70% 이상이었다.<sup>44)</sup> 1995년 흑룡강 신문사에서 주최한 ‘우리 마음의 귀속은 어디에’라는 주제 토론에서 참가자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다. 우리는 조선족이다. 우리는 중국 사람이라는 운명을 선택하였다. 중국만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중국에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이 땅에 옮겼으며,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sup>45)</sup> 라고 하였으며, 한편 김인영·김왕식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족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고 싶은 나라 역시 중국 56.2%, 한국 29.4%, 일본 3.2%, 북한 0.9%, 기타 1.4%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조선족의 조국에 대한 가치관은 매우 정확하며,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자부심도 높게 나타내고 있다.<sup>46)</sup>

민족 정체성은 구성원들만 주장해서는 완전한 정체성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타인들에게 그것을 인정받을 때 그 민족 정체성은 완전한 것이 된다. 민족 정체성형성

---

42) 정체성이란 라틴어 Identification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체성은 자기정의, 주체성, 자각, 존재증명, 최근에는 자아 정체감(또는 동일화)과의 관련으로 동일성이라고도 한다.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세계』(서울: 교육과학사, 1993), p. 23.

43) 고지영, 앞의 논문, p. 31.

44) 최우길,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소고”, 『재외한인연구』 제8호 (재외한인학회, 1999) p. 202.

45) 흑룡강신문, 1995.4.1.

46) 김인영·김왕식, “중국 조선족의 사회 발전과 한·중관계의 위상”(서울: 집문당, 1996), p. 36.

과정에서 민족적 상징과 국민적 상징과의 동일시 과정은 상호 보완적이다.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보면, 다민족국가에서 국가가 민족 집단의 존재, 독특성, 민족구성원들의 민족적 상징과의 동일시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적 상징의 동일시는 물론 민족 정체성 형성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 집단은 저마다 독특한 상징과 그들이 중시하는 민족적 욕구가 있다. 이러한 민족적 상징의 유지 또는 민족적 욕구 충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는 국민적 상징들의 내면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조선족의 경우 해방 전 대부분의 조선족은 농민이었고, 벼농사는 민족의 대표적 본업이었지만 이주 이후 역사적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다.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의 절실한 욕구였던 토지문제를 토지개혁을 통해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민족의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조선족사회의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었고, 국민적 상징과의 동일시 과정을 촉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적 상징과의 동일시 과정에서 국가는 민족 집단이 중시하는 민족적 상징을 자율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민족적 욕구를 만족시킬 때 국민적 상징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게 할 수 있었다.

다민족국가에서 민족구성원들이 민족적 상징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또 동일시할 수 있을 때 민족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민족국가의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민족적 상징과 동일시는 분리의식이 형성되지만 이 분리 의식 속에는 통합의식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 (2) 중국 조선족 신분의 확립

1928년 7월 9일에 중국공산당 제6차 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에서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문제(북부의 몽고, 회족, 만주의 고려인, 북건의 대만인 및 남부의 묘, 려 등 원시민족과 신강과 서장)가 혁명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sup>48)</sup> 만주의 고려인 즉, 한반도에서 이주하여온 조선인은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중국 6전대의 조선족에 관한 주장은 <중국 만주위원회가 중앙에 보내는 서신>에

47) 고지영, 앞의논문, p. 32.

48) 中共中央统战部, “民族問題文獻匯編”,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1), p. 87.

서 만주의 한족혁명운동은 만주의 소수민족운동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만주성위원회 소속하에 한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소수 민족부를 성립한다고 보고하였다. 1931년 5월, 중국 만주성위원회는 『한국민족 문제에 관한 결의안』에서 조선족은 ‘정치, 경제적으로 만주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만주 소수민족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제출하였다. 동년11월 중국공산당은 강서중앙혁명근거지에서 중화노동병 소비에트 1차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에서 통과시킨 『중국 경내 소수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과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 대강』에서, 조선족(한국인, 고려인)을 중국경내의 소수민족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의 공민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소비에트 정권 영역내의 漢, 滿, 蒙, 回, 藏, 苗, 黎와 중국의 臺灣, 高麗, 安南人등은 소비에트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고, 모두 소비에트인민공화국의 공민이다”<sup>49)</sup> “중국소비에트 정권은 중국경내의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승인한다. 그들은 중국 소비에트 연병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으며, 스스로의 자치 구역을 건립할 수 있다”고 중국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특히 헌법대강에서 조선족의 공민지위와 자치구역건립의 권리를 제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sup>50)</sup>

1945년 8월 항일전쟁 승리 후, 조선족을 포함한 동북 각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동북 근거지는 비적소탕, 악패 지주반대, 전선지원, 생산발전, 토지개혁, 민주정권수립을 시작하였다. 참전과 토지개혁 등등의 측면은 조선족의 소수민족 지위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국적 문제와 관련되고, 국내와 국제요소와 관련되어 있어,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하였으며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였다.<sup>51)</sup>

동북지구 특히 연변지구의 토지개혁, 정권건설과 해방전쟁 중, 중국 공산당은 조선족의 공민자격을 완전히 인정하였고, 그들이 토지를 분배받아 토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지방정권에 참가하여 정권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 동북의 조선족 특히 연변의 조선족은 거의 모두 중국 국적에 가입하였다. 이렇게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조선족의 중국 소수민족 지위는 승인 되었고,

49) 中共中央统战部, 위의 책, pp. 166-169.

50) 崔慶植, “全球化背景下的思考:中國民族政策及朝鮮族历史, 現狀與未來”, (中央民族學博士論文, 2004), p. 27.

51) 박선욱,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지위와 역할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75.

조선족의 대다수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 되었다.<sup>52)</sup>

1949년 중국이 건국되기 직적인 9월말, 조선족의 국적문제에 대해서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한족과 동등하게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인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선족은 중국의 건국 당시에 인정받은 9개 민족 중의 하나가 되었다.<sup>53)</sup>

1949년 9월 북경에서 소집된 전국 제1기 정치협상회의의 개최에서 채택된 공동강령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의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마땅히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해야 하고 민족 집거구의 인구의 분포와 지역에 따라 분별 있게 각종 민족자치기관을 건립해야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로부터 조선족은 법률적으로 승인받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원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들은 공동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에 근거하여 중앙인민자치구를 설립하고 민족구역 자치를 실시하였다. 1955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자치구를 자치주로 개편하였다. 1958년 5월 19일에는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을 건립하였고, 길림, 흑룡강, 요녕, 내몽골 등지에는 42개 조선족 향이 앞을 다투어 건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조선족들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 정책 하에 민족평등의 권리를 갖게 되었고, 주, 현, 향에 이르는 민족구역자치를 실현하게 되었다.<sup>54)</sup>

### (3) 조선족의 국적 문제

조선족동포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의미한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조선족동포들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그들이 같은 동포임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중국국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면서 어떻게 중국국민임을 강조할 수 있느냐며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사람을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조선족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국민이다. 따라서 조선족동포들이 중국국민임을

---

52) 김해란, “중국과 한국의 조선족정책이 조선족정체성에 미친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23.

53) 공봉진, “중국 조선족에 대한 정책변화가 조선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문화연구』 제18집 (부산외국어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2006), p. 9.

54) 고지영, 앞의 논문, p. 27.

강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 한국인들이 문제 시하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려는 데 따른 오류일 뿐이다.

우리는 단일민족국가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민족과 국민은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을 구성하는 인구 5천만여명 대부분이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단일민족국가임을 자랑하며 타민족을 배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 중국 국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족이라는 명칭도 중국당국이 그들의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여타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따라서 조선족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과 국민은 별개이다. 즉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나라의 국민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족동포들에게는 그들이 중국국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답답할 뿐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물론 조선족동포들이 중국 국민임을 주장하는 데는 이 같은 인식의 문제와 함께 중국국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 많은 조선족동포들은 당장 사는 것이 고단하기는 해도 중국정부에 대해 큰 불만이 없다. 중국정부가 소수민족정책을 통해 조선족동포들이 민족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며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족동포들은 대체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조선족동포들이 다른 지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한민족에 비해 거주국 즉 중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이들이 중국을 건국하는 과정에 기여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중국의 미래가 밝다는 인식도 조선족동포들로 하여금 중국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한 조선족동포들 중 상당수가 중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싫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족동포들이 당당하게 중국 국민임을 강조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단일민족 국가라는 역사와 전통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 1백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sup>55)</sup>. 그중에서 수만 명의 외국

인이 국적을 취득해 우리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막연히 우리나라를 좋아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서부터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등 그 이유도 가지가지다. 한국국민 중에도 우리와 다른 민족이 적지 않게 섞여 있는 것이다.

또 700만 한민족이 세계 각국에 나가 살고 있으며,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우리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 살아가고 있다. 세계화를 구성하는 21세기는 다민족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동포들이 우리 국민이 아닌 중국국민이라는 것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조선족동포들이 우리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살아가기보다 우리와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중국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좁은 한반도에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넓은 땅에서 멀리 내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한민족의 미래에 더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일체의 침략을 피해 만주로 갔던 선조들 중에는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맘껏 꿈을 펼치려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그 이상은 유효하다. 그들이 우리 국민이 아님을 야속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동포가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자리 잡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한다.<sup>55)</sup>

#### (4) 조선족사회의 발전전망

도시화와 세계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중국에 이미 뿌리를 내린 조선족은 중국의 도시화과정에 발맞추어 과거 농경민족에서 도시민족으로 탈바꿈하여야 하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 고국인 한국과의 유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쌓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사회의 경제력을 빨리 키워야 한다. 경제력에 따라 도시의 집거지역도 조성하고 민족학교도 세우며 문화장소도 만드는 등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선족 사회 모두 “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더욱 많이 한국에 진출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 진출할 것이다.

55) 행안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56) 박승지, “동북아시아 시대의 연변과 조선족”, (주. 아이필드, 2008), 참고.

여기서 우리는 너는 “한국인”이고 나는 “조선족” 또는 “제일 korean”이라고 따지지 말고 현지에서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여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중국의 예로 현재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사람들이 80여만 명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많아 질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도 동북 집거지역을 떠나 산해관 이남으로 수십만 명이 진출하였다. 이런 와중에 도시에서 민족 집거지역 형성이 중요하다. 일정한 인구의 집거지역이 생기면 민족교육의 장소가 점차 형성될 것이고 민족교육이 가능하면 더 많은 조선족이 몰려 올 것이며 당연히 지사 한국인들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조선족 도시에서도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한 민족의 동질성을 더욱 돈독이 할 수 있을 것이다.<sup>57)</sup>

김강일은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순수한 민족적 감정은 조선족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그는 한국인이 조선족 사회를 중국의 특수한 부분으로 인정하여 조선족으로 하여금 거주국인 중국의 법을 잘 지키고 중국의 훌륭한 국민이 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족이 중국인이라고 하여 한족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라고 하여 한국인이 되는 거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 기업 혹은 한국인이 조선족을 무조건 한국 민족 또는 한국인으로 간주하고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한다. 조선족 대부분은 한국인에 대하여 한민족으로서 동족이라는 민족관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여 중국을 조국이라고 여기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중 하나로서 중국 정부의 법적 보호와 관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의 교류는 단순한 동족간의 교류를 넘어 중국 공민과 한국 국민과의 교류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조선족이 갖는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교육을 제대로 받아 중국 사회에서 귀중한 인재가 되도록 지원하여, 한중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58)</sup>

---

57) “2008교포정책포럼” 지정토론문(2008, 12.16~17) 참고.

58) 임계순,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주. 현암사, 2003), pp. 328-329재인용.

## IV. 조선족교육과 이중 언어

조선어의 운명은 조선족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sup>59)</sup> 조선족은 일제의 식민통치가 심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들의 언어와 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와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진정한 해방을 맞은 조선족은 조선어의 재생작업과 발전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의 언어문자로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이루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선족은 다민족국가의 이중 언어 환경에서 생활하는 형편에 비추어 한족을 비롯한 이웃민족과의 교체와 발전을 강화하였고 우리 민족에 대한 무대를 넓히어, 중국의 통용어인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자신들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족은 이중 언어(조선어, 중국어)사용집단으로서 자신들의 이중 언어 교육방법과 제도적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행정에서의 명확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과제와 문제점들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아갈 문제이다.

본장에서는 이중 언어의 교육발전에서 나타나는 조선족의 교육특징 및 변이 실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훗날 우리가 중국어의 어휘를 사용함에 있어서 행하여야 할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조선족과 한국 민족에 대한 언어를 연구하는 데에도 부분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1. 조선족의 현황

#### (1) 조선족 교육의 역사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뒤 조선족은 한족을 비롯한 56개민족이 함께 살고 중국어를 국가적통용어로 하는 대가정속의 일원으로 되었다. 이런 생

---

59) 리홍우, 위의 논문, p. 82.



활적공간은 조선족으로 하여금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훌륭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잘 사용할 것을 요청 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창건 그때로부터 조선족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중 언어 사용과 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도를 정비하고 찾음에 있어서 그 역사적 맥락을 다음과 같이 네 개 단계로 찾아 볼 수 있다.<sup>60)</sup>

첫 번째 단계 (1949년 10월 1일 ~ 1957년 6월) 먼저 이시기를 살펴 보기전에 1945년 해방 전 시기를 살펴보고자한다.

8·15 해방 전에 중국 동북지방은 일제의 통치하에 있어서 일제의 식민지 동화정책으로 민족어문은 전혀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한반도는 중국과 교류가 있었으며 중국으로 이주한 한족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집거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중국인들과의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조선족의 조선어는 한국어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었다.

그 후에 공화국창건 때로부터 ‘반우파투쟁’ 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조선족이 자기의 말과 글을 재생, 흥성시키기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어 교육에도 신경을 씀으로서 이중 언어 생활 및 그 교육을 계획적으로 추진시킨 때이다.

특히 1954년 9월20일에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서는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며 발전시킬 자유를 가진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런 시책과 법적규정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를 비롯한 조선족자치현과 자치향정부에서는 이중 언어제도를 정립하면서 조선어를 제1위 공용어문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고 적지 않은 중요한 공문들을 조선어로 작성하여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계에서 조선어로 된 신문, 출판, 조선말방송 등의 확충, 창설 사업도 힘차게 추진시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연변일보와 연변인민방송국은 자기의 시설이거나 독자, 청중의 공간을 넓히면서 조선어의 보급에 열기를 올렸다. 중앙인민방송국은 1950년대부터 대내, 대외로 조선말방송을 시작하여 우리말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1947년 3월에 창설된 연변교육출판사는 1951년 9월에 이르러 연변인민출판사와 연변교육 출판사로 분리되어 조선어발전을 위한 문화적인 사업을 더욱더 다그쳤고 연변가무단과 연변연극단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말로 예술종목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조선어로 된 ‘소년아동’, ‘소년교육’, ‘연변소

60) 조성일/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장 “중국 조선족의 이중언어 생활과 교육” 외교통상부(2004) pp. 185-189참고.

년’, ‘연변청년’, ‘연변위생’ 등 각종 잡지를 창간하였고 1957년 1월에는 ‘소년아동보사’를 창립하였다.

1950년부터 1957년 상반기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국어과를 설치하여 고급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중국어를 가르쳐 학생들의 이중 언어교육에 역동적인 힘을 가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중국어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욕심에 1952년 연변중국어사범학교를 설립하여 초등학교중국어 교원양성에 큰 틀을 두었다.

두 번째 단계(1957년 7월 ~ 1966년 5월) 이 단계는 ‘반우파투쟁’ 때로부터 ‘문화대혁명’전야까지로서 거듭되는 ‘좌’경적사조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조선족 이중 언어생활과 이중 언어교육이 우여곡절의 길을 거치면서 자기의 앞길을 힘겹게 개척해 나간 때이다. ‘좌’경적오류로 특징되어지는 ‘반우파투쟁’ 확대화와 1958년 ‘대약진운동’ 및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정풍’은 조선족의 언어생활과 이중 언어 교육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런 그릇된 사조의 충격 속에서 조선족 초·중학교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때 연변대학의 교수용어에서 조선어가 배제되었고 조선족 초·중학교에서는 조선어가 없어지거나 교수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하여 중국어과의 위치가 높아지고 그 교수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조선어교과서는 1955년부터 민족문학이 취소되고 70%이상이 전국통용교과서(중국어)의 것들로 꾸며졌다.

이를테면 1959년 상반기에 출판된 교과서를 볼 때 초등학교 조선어의 170개 과목 가운데서 전국통용교과서의 것을 번역한 것이 130개 과목으로서 약 76%를 차지하고 중학교 조선어의 85개 과목 가운데서 번역한 것이 66개 과목으로서 약 78%를 차지하였다. 이리하여 이 시기 조선어교과서는 사실 ‘번역문교과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60년대에 진입하여 ‘좌’경적오류가 부분적으로나마 시정되자 조선족의 언어생활과 이중 언어교육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생기가 다시 돌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정부에서는 연변 언어문자 연구위원회(1962년 6월)와 연변민족어문 역사연구위원회(1963년 8월)를 창립하여 조선어의 보급 활동과 조사연구 사업을 진척시켰다. 이리하여 이 시기는 조선어교과서에서 다시 우리 민족의 고전과 현대 작품을 다루었고, 조선어법과 조선어 기초지식훈련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중국어과를 초등학교 2학년 부터 설치하여 조선족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에 박차를 가하였다.

세 번째 단계(1966년 5월 ~ 1976년 10월). 이 단계는 ‘문화대혁명’시기의 10년을 말하는데 조선족의 언어생활과 이중 언어교육이 여지없이 무너진 시기이다.

‘문화대혁명’초기에 설립된 조선어지도기관과 연구실체들이 해체되고 조선어잡지들이 폐간당하고 모든 조선족문학예술단체들이 그 외각만 남게 되었다. 조선족자치지역의 각급 정부와 인민단체의 이중 언어 제도는 모두 사라져지고 중국어만이 남게 되었으며, 사회에서는 조선족 농촌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어만을 의사소통의 매체로 탈바꿈시켰고, 학교교육에서도 전대미문의 재난을 가져왔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모든 학교의 교수활동이 정지되었으므로 조선어교육도 진행할 수 없었다. 1970년부터 비록 학교교육이 복원되었지만 잇달아 밀려오는 정치운동으로 하여 조선어교수의 정상상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다.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에 조선족 초·중학교에서는 어문지식교육이 아닌 교재를 교육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어교과서가 편찬되었는데 그것마저 대부분이 전국통용어문교과서의 것을 번역한 정론문으로 엮어졌다. 즉 조선족 작품의 비율은 매 책에 겨우 0.6%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 이런 교과서의 교육시간마저도 부족 했다.

1976년 연변에서 편찬한 10년제 과정안에 따르면 조선족 초·중학교의 조선어교육 시간은 초등학교에 1060시간, 중학교에 540시간 도합 1600시간이었다. 이것을 ‘문화대혁명’전 10학년(즉 고등학교의 1학년)까지의 조선어교수시간과 비교해보면 1000시간이나 적었던 것이다. 이런 형편은 그 후 비교적 오랜 시기에 걸쳐 우리의 후대들을 새로운 ‘문맹’으로 만들어버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 7월에 연길시, 도문시, 왕청현, 화룡현의 4개 조선족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920명을 조사한데 의하면 조선어로 일반적 편지도 순통하게 쓰지 못하는 학생이 약 30%나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부류의 학생들은 조선어수준이 이렇 뿐만 아니라 중국어 수준도 가련한 형편이었다.

네 번째 단계(1970년10월 ~ 1989년 12월). 이 단계는 ‘문화대혁명’이 마무리된 그 때로부터 80년대까지로서 조선족의 이중 언어생활과 이중 언어교육이 융성한 발전을 한 때이다. 이 단계에 민족정책의 새로운 조명아래 자기 민족의 주체성에 대한 전례 없는 자각과 민족 결신의 양양에 따라 조선족의 언어문자생활과 이중 언어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고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시대의 영마루

를 흘러넘치는 개혁개방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새로운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시기였다.

## (2) 조선족의 교육열

조선족 공동체의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교육에 대한 애착심은 민족 교육을 존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다민족국가에서 민족교육의 존속과 발전은 민족 집단의 지위와 밀접히 관계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민족교육은, 조선족 집단이 정당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민족동화의 장으로 이용되었고 그 발전 정도도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는 중국의 민족정책으로 민족평등의 권리를 획득하였고, 민족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자주적으로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조선족교육은 중국공산당의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발전 가능했으며 나아가 하나의 민족특색을 띤 민족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sup>61)</sup>

조선족의 교육열<sup>62)</sup>은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 일제가 조선족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와 회유방법’으로 조선족교육을 통제하고 동화교육을 추진할 때 조선족들은 이에 대항하여 일본인 학교의 취학을 기피하였다. 당시 간도 보통학교에서는 무상교육<sup>63)</sup>을 실시하였으나 조선족의 강한 반일감정과 민족적 자부심으로 인해 환영받지 못

61) 조윤덕,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과 교육”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 104.

62) 김영화는 교육열을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실제로 교육에 투입하는 행위’로, 이중각은 교육열을 하나의 동기 정도로 보고 교육열은 동기 자체인 것이 아니라 동기정도라고 규정하면서 교육열에는 기본적 에너지는 恒存해 있으며, 사회조건과 교육조건에 따라 학부모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한다고 규정하고, 한국인의 교육열의 기저에는 무엇인가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고,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개체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에 교육열은 가변성, 적응성, 확산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봉영은 한국인의 교육열을 전통적인 家의 원리를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인의 교육열은 입신양명적 교육열로부터 출세 지향적 교육열로 변화되었다고 보면서 교육열은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교육열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오옥환, 한우희는 ‘취학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하고, 이돈희, 이인효는 ‘강한 교육적 열기’로, 김희복, 김영철은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와 지원활동’으로 개념하고 있고, 이영호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사회 구성원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김용숙은 ‘입신출세에 필요한 최고의 학력이나 일류의 학벌을 자녀들에게 갖게 하려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적인 욕망’으로, 이효수는 교육열은 본질적인 의미는 ‘능력 개발과 인격 도야에 대한 강한 열의와 욕구’라고 보고 있다.

63) 일제가 설립한 간도보통학교 및 그 분교에 설치된 부속서당은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었는데 1개교당 평균 640월의 보조금이 주어졌고, 교사 일인의 봉급 및 전년도 사용경비가 지급되었다. 또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교과서의 무료배부·기숙사 설립 등의 조건과 함께 심지어는 졸업 후의 취업알선을 제시하면서 한족학생의 취학을 유도하였다.

했다. 당시 조선족 대부분은 일제가 운영하는 학교에 취학한 韓人학생은 물론 그 학부형들까지도 일본의 앞잡이로 경시하였고, 일제가 세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민족의 변절자’로 치부하였다. 그리하여 교원이 17명이나 되는 ‘간도보통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54명에 불과하였다.

조선족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높다. 조선족이 살고 있는 동녕현에서의 조선족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조선족의 민족 교육에 대한 열망이 어떠한지를 잘 확인시켜 준다.

### ‘동녕현의 눈물겨운 조선족학교 살리기’.

이 지역의 조선족 민족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삼차구진에는 모두 5개의 조선족 초등학교가 있다. 삼차구초등학교와 장정, 하북, 동방홍, 오성초등학교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들 모두가 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삼차구초등학교는 지금 학생수가 323명으로 줄어들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00~700명에 달하던 학교였다. 다른 학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학생 수를 보면 장정초등학교 17명, 하북 79명, 오성 90명, 동방홍 48명 등이다. 쓰러져가는 민족교육을 보다 못한 삼차구진 주민들은 지난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5개로 흩어진 조선족초등학교 학생을 모두 모아 통합초등학교를 만들고, 최신 교사와 학습 기자재를 구비해 경쟁력 있는 초등학교로 키우자는데 합의했다. 4층짜리 교사를 짓는데 인민폐 260만 위안(약 3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 시골에서 이런 큰돈을 모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삼차구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눈물겨운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월급이 500~1000위안에 불과한 공무원들도 직위에 따라 자기 월급보다 많은 돈을 냈다.

주민들은 한 사람당 60위안씩을 내기로 하고, 한 톨의 쌀이라도 더 팔아 모금운동에 참여했다. 아이들도 코 묻은 용돈을 털었고, 주변 한족들도 힘을 보탰다. 여기에다 村예산과 縣정부의 지원, 省교육예산의 지원 등을 합쳐 주민들이 모은 돈은 130만 위안이었다. 시골에서 이 정도의 돈을 모은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문제는 올 8월이면 기존학교를 모두 폐교하고 신축교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공사 진척이 느리다는 점이다. ...삼차구 주민들은 올 봄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2차 모금운동에 들어갔다.<sup>64)</sup>

이처럼 조선족 교육열의 구체적인 표출양식은 개인 교육관의 작용에 의해 복합적으로 표출된다. 개개인의 동기로서의 힘은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주체성을 띠며, 가변성·다양성·적응성을 지니고,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흐른다. 예컨대, 학교 설립열, 입시열, 학력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3) 조선족 교육의 위축

조선족은 이주 1세대들이 집거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조선족학교를 통해서 조선어 교육을 배워왔고 조선족의 후예역시 당연히 조선족학교를 다니면서 조선족교육의 발전과 역사를 이어 나가왔다. 1990년 통계에 의하면 조선족 초등학교 363개소, 중·고등학교가 288개소로 학생 수는 총 35만 5천 명이였다. 정부의 지원 하에 일간 조선어 신문인 흑룡강신문, 연변일보, 주 3일 발행하는 길림신문, 주간신문인 요녕신문 등 4개가 있으며, 조선말 방송(TV, 라디오), 은하수, 장백산, 연변문학, 송화강, 도라지 등 조선어 잡지를 운영하면서 조선어 보급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sup>65)</sup>.

그러나 이러한 소수민족 지원 정책은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어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다. 말과 글을 상실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의식이 바뀐다. 조선어의 운명은 조선족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sup>66)</sup> 시장개방에 따른 도시화와 이동현상으로 집거지가 분산되면서 조선족 학교들이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근래에 조선족 농촌에서 북경, 상해, 천진, 광주 등 대도시로 이동한 조선족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67)</sup> 이들은 적어도 조선족학교가 없는 도시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족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민족의식을 가지고 조선어를 가르치기에는 그 부모들도 의지가

---

64) 신동아 2000.6

65) 강용찬, 보고서, p. 10.

66) 리홍우, 위의 논문, p. 82.

67) 연변일보 1997.1.6.

약하다. 1990년대 초기 흑룡강성 지역 조선족 학생 81,072명 중 초등학생의 36%, 중학생의 38%, 고교생의 36%가 한족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치치할시의 조선족 학생 중 60%가 한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고,<sup>68)</sup> 특히 컴퓨터 생활이 보급됨에 따라 중국에서 보급되는 워드프로세서가 모두 중국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어로 생활하기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가 정착되어가면서 민족적 의식보다는 중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유리한 중국어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조선어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개인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명문대학을 진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족학교에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1996년 하얼빈시 동력조선족초등학교와 도리조선족 초등학교 졸업생 117명 중 7명(4.3%)이 한족중학교에 진학하였는데 2000년에는 두 학교 졸업생 221명 중 41명(18.6%)이 한족중학교로 진학하였다.<sup>69)</sup>

전 주 상주 인구 중 대학(전문대 이상)문화정도를 갖춘 인구가 23만 4956명, 고중(중등전문학교 포함)문화정도를 갖춘 인구가 54만 8091명, 초중문화정도를 갖춘 인구가 98만 1163명, 초등학교 문화정도를 갖춘 인구가 36만 9991명이다.

2000년 제5차 전국인구보편조사와 비교시 10만명당 대학 문화정도를 갖춘자가 5945명에서 1만 343명으로 인상되고 고중문화정도를 갖춘자가 2만 2319명에서 2만 4128명으로 상승하였으며 초중문화정도를 갖춘자가 3만 9505명에서 4만 3193명으로 인상되고 초등학교문화정도를 갖춘자가 2만 2971명에서 1만 6288명으로 줄어들었다.

전 주 상주 인구 중 문맹인구(15세 이상의 인구 중 글을 모르는자)가 3만 9637명으로 2000년과 비교시 3만 9434명 감소되었다.<sup>70)</sup>

이처럼 자신들만의 배움터인 조선족학교의 발전이 계속 위축되고 등한시한다면 조선족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말과 글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과 동시에 역사 또한 사라진다고 생각 한다. 중국 자체에서도 다른 소수민족과 다르게 조선족들을 위한 헌법과 조선족 민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원천적인 힘은 조선족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조선어가 있기에 가능

68) 흑룡강신문 2000.9.28.

69) 흑룡강신문 2000.10.5.

70) 연변일보 2011.5.19

한 발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과 민속, 문화 등을 현재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1세대에 거친 짐거지를 통한 언어와 자신들만의 글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언어와 민족문화를 전수해온 민족교육의 위축은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켜 자신들의 정체성 또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2. 조선족 교육의 특징

조선족교육은 형성 초기부터 이미 명확한 민족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근대 학교 교육으로 발전하는 반일 사립학교 단계에서 대중성에 기반을 두고, 항일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학교교육의 근본목적으로 하면서 명확한 민족특징을 띠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족교육의 특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민족 평등 정책 및 민족교육 방침·정책으로 보존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중 언어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조선족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조선족 초·중학교에서는 조선말과 글로 가르치고 조선어교재를 사용하며, 다른 소수민족의 어문교육에 비하여 민족 언어문자사용의 광범성, 민족어문교육체계의 완전성, 민족어문교육역사의 안정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조선민족문화를 교수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민족의 언어문자,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을 교과목교수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세 번째. 조선족교육은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족 교육은 기초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보통교육으로부터 전문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으로부터 과외교육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민족교육행정관리도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네 번째. 조선어교재를 자체로 편집, 출판,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어교재의 편집, 출판, 발행 사업은 주로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에서 맡고 있는데, 조선족 초·중학교학교의 조선어, 중국어, 외국어, 음악, 체육, 미술, 무용 등 교재를 自編하고 정치, 역사, 지리, 화학, 수학, 생물, 자연지리 등 교재는 전국통용교재를 번역하여 출판하며 조선족사범학교, 유치원 및 직업기술학교의 부분적 교재를 편집, 번역



하여 출판하는 외에 민족이론상식, 민족역사, 향토지리 등 교재와 교수참고서, 사전류, 교원연수교재, 학생과외도서 등을 편집하여 출판한다. 또 조선족은 조선어교재협의기구, 조선어교재심사기구도 갖고 있다.

다섯 번째. 조선족교육은 국제성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은 조선, 한국 및 세계 각지에 있는 겨레들과 혈연적, 문화적 연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 이로 하여 조선족교육은 국제성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71)</sup>

이 외에도 조선족교육의 특징을 분석한 교수들의 말에 따르면 허청선(許靑善, 1995)은 조선족교육의 특징을 ‘조선 교육의 계승성, 문화배경의 다민족성, 조선교육 목표의 이중성(건국전)과 단일성(건국후), 언어교육의 이중성, 조선족교육의 세계성’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창수(黃昌洙, 1995)는 조선족교육의 특징을 ‘민족성과 지역성’에서 찾고 있다. 조선족교육의 특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공통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 교육내용의 단일성

단일 민족학교의 운영형태는 조선족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조선족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일 민족학교 운영형태를 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전승과 재생산에 유리한 객관적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선족이 단일 민족학교 운영형태를 취하게 된 데는 객관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조선족이 이주초기부터 단일공동체를 형성하여 거주했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이후 생계경제, 집단이민, 민족격리 정책, 민족 공동체의 의식 등으로 조선족 마을을 이루어 생활하였다. 따라서 조선족은 이주초기부터 독자적인 학교를 세우고 자녀들을 교육해왔다.

### (2) 교육 내용의 보편성과 민족성

교육내용은 교육의 목표에 의해 결정되며 선택된다. 조선족교육은 초기에는 주로 반일 사상과 민족독립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육내용

---

71) 김영립 정리 두차례 학술회의요지 “조선족교육의 특징 및 전망 연구토론회요지” (1995) pp. 223-226.

도 조선민족 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조선족 교육내용에서 반일 정신을 고취하고, 민족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민족자치 단체인 「간민교육회」 산하에 편찬 위원회를 두고, 조선역사와 조선지리에 관한 서적과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반일 민족사립학교들에서는 조선의 역사와 지리, 조선어, 조선 문학 등을 통하여 반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에 사용된 역사 교과서는 『최신동국사』, 『초등동국사략』, 『동양역사』, 『월남망국사』, 외에도 『이순신전』, 『안중근전』 등과 같은 민족영웅의 전기도 포함되었다.<sup>72)</sup>

반일 사립학교에서는 국어를 중요하게 가르쳤다. 국어교과서 중 『국어독본』에는 ‘애국심’이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다. ...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며 주권을 빼앗긴 것을 여윈 부모를 생각하듯이 그리하여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학습하고 일한다면 국권을 도로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역설하면서,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독립을 위한 인재 양성을 중시하였다.<sup>73)</sup>

### 3. 이중 언어의 현황과 향후과제

#### (1) 이중 언어교육의 현황

조선족들은 중국어 중심의 중국사회에서 祖國인 조선어와 故國인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족사회는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민족 언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교육하는 이중 언어 교육을 중시하였다. 민족 학교는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장으로서 민족어문 수업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연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자기민족의 언어와문자로 수업하는 민족교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선족의 문화교육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72) 연변민족교육연구소교육사연구실, 연변조선족교육사, (연변:연변인민출판사, 1987), p. 38.

73) 위의 책, p. 39.

현재 조선족교육의 이중 언어에 대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우리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아름다운 욕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졌다. 그런데 이 욕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또 고민이다. 조선족들이 대도시로 진출하면서 주류사회에서 성공의 열쇠로 중국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한류와 한국기업 대규모진출로 우리말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점에서 이 《두 마리 토끼》의 숙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진 것이다.

다행히 조선족사회의 교육계는 일찍부터 이 중요성을 파악하고 조선족학교에서 이중 언어교수 실험을 진행하고 꾸준히 실천해왔다. 문제는 그동안 실천을 거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며 또 그 가운데서 거론된 《조선족학교 교수언어 중국어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찬반론이 들끓는 것이다.

또 이 문제가 조선족학교 존재기반을 흔드는 현상이라고까지 제기되면서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중 언어교수에서 우리말이 위주냐 아니면 중국어가 위주냐의 비중문제이다.

### 《일부 도시학교 교수용어 중국어화 현상》

여러 지역 도시의 상당수 조선족학교들은 교수가 사용하는 언어가 중국어화 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학교에 따라 정도가 다르지만 일부 학교는 수학 등 한과목만, 일부 학교는 영어, 자연 등 일부과목을 중국어로 교수하며 일부 학교는 조선어과에서까지 중국어가 교수용어로 되어 조선어가 명실공한 ‘외국어’로 되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 출발한 시대적 추세’라는 찬성론에 맞서 ‘이것은 조선족학교 존재 필요성을 없애는 방향성 착오’라는 반론도 격렬하다.

현재 도시 조선족 3세대들은 대다수가 조선어를 모른다. 또 부모일방이 한족인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장춘시 이도구 조선족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2004년 신입생들 중 양부모가 다

조선족인 가정이 60%, 한쪽부모가 한족이거나 양부모가 다 한족인 가정이 40%로 집계 되었다.

또 부모가 다 조선족인 가정에서도 일상용어가 조선어인 가정은 30%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대부분의 주위에 있는 농촌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도시로 전학한 애들이다. 그리고 학전교육을 조선족유치원에서 받은 학생은 40%로 나타났다.

보다싶이 대도시의 경우 조선족학교 대부분 학생은 조선어환경이 열악하고 기초가 아주 빈약하다.

따라서 '이중 언어교육 중국어위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정에서 출발한 실사구시'라고 말한다.

#### 《조선어과 외 전부 중국어로 수업》

도시의 한 조선족학교는 조선어과와 음악과를 제외한 다른 과목 수업시간에 다 중국어를 사용한다.

초등학교단계 6년 동안의 조선어목표는 4학년수준의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수준에 대체적으로 도달하는 것으로 정했다.

따라서 조선어교재만 여전히 연변교육출판사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 교재는 모두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어 교재를 쓰고 교수목표는 한족학교 같은 학년과 동일하다.

#### 찬성과: 《중국어위주가 조선족학교 출로》

중국어위주로 주장중에 파격적인 주장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족교육은 긴 안목에서 출발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일찌기 이행 되어야 한다. 이는 조선족교육의 출로이다.

조선족학교이니만큼 조선족교육을 지켜야 한다며 현실의 변화와 추세를 무시하고 조선족어 위주만 고집한다면 오히려 조선족학교가 빨리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본도 현재 일부 한글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 이를 교훈으로 여겨 봐야 한다.

조선족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맞추어 주는 것만이 조선족학교가 오래 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조선어를 위주로 하지 말고 중국어를 위주로 해야 한다.

주류사회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주류사회에서의 기본 경쟁력이다. 중국에서는 우선 중국어를 <정통>하고 겸하여 조선어를 <구사>하는 것이 방향이다.

#### 《중국어는 한족 못지않은 수준이어야》

일반적으로 조선족학교의 고·중을 졸업하면 한족학교 초중 1학년 정도의 중국어 실력을 갖춘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곤 중국사회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중국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시켜 중국어가 한족 못지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말은 시간을 좀 늦추어도 될 수 있다. 집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조선말을 하여 당분간은 귀에 익혀주는 정도로 유지하고 한국에 가서 1, 2년 학습, 생활하는 것으로 조선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중국어나 조선어가 다 완벽해진다.

#### 반론파: 《조선족언어 조선족교육의 기반 동요할 수 없다》

조선족학교 교수용어가 중국어 위주나 중국어화가 될 경우 조선족학교와 조선족교육의 생존과 필요성이 의문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조선족교육의 방향성 원칙적 문제라고 반론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심양의 한 조선족 초등학교 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조선족학교의 언어교육이 중국어 위주라면 조선족학교 존재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한족학교에 조선어교육반을 설치하면 된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조선족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상당수의 학부모들도 머리를 흔든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족학교에서 중국어로만 교수하면 하필이면 여러 가지로 여건이 한족학교보다 못한 조선족학교에 보내겠는가?.. 조선족학교에 가서도 조선말을 할 기회가 적다면 애써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렇듯 이중 언어교육의 목표는 중국어와 조선어를 다 ‘流暢’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몇 년간 이중 언어교육의 실적을 보면 이 두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여러 지역 도시에서는 학생들의 제1언어가 중국어이고 조선족학교에 가서부터야

조선어를 배우게 된다.

때문에 제2언어로 배우는 조선어가 조선어수업시간만 가지고 언어 환경이 없이 ‘정통’의 정도에 도달할 수 없다. 게다가 중학교에 가서 이중 언어 교수는 중국어 사용으로 치우치기에 목표도달과 어긋나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조선족학교에서 조선어를 더 배우는 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중 1학년까지 한족학교에서보다 1000여 수업시간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는것이 길림성 교육위원회 해당 책임자의 말이다.<sup>74)</sup>

제한된 시간, 경제력 등에서 학생들이 한족학교 못지않게 중국어도 잘하면서 조선어를 잘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조선어에 할애하는 시간 때문에 중국어도 깊이 있게 배울 수 없게 되어 중국어, 조선어 둘 다 못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물며 조선어, 중국어, 두 언어의 습득은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에 조선족학교는 조선어, 중국어에 정통한 교원 또한 역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조선족자치내에서도 두 가지언어 현상 즉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찬·반론이 문제점으로 제시 되어나가고 있다. 찬성입장에서 고찰해본다면 그 역시 맞는 말이며, 반론의 입장에서 고찰해본다면 이 역시 중요한 안건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조선족민족의 교육의 질이 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작 배우고 싶어 하는 조선족민족에게 피해가 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역시 잘 교육되어 있는 이중 언어 교육방식이지만, 하루빨리 조선족민족의 언어가 자신들만의 정통성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 (2) 문제점

### 1) 번역교재의 번역에 대한 문제점

조선어 교재에서 번역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상당히 크며 이 부분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번역수준의 여하는 조선어문고 재건설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어떤 교재의 번역은 비교적 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교재는 극히 소수이다. 대부

---

74) 길림신문 2005.8.20.

분의 번역교재는 물론 큰 원칙적 문제는 없으나 번역 질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떤 교재에는 오역이 적지 않았고, 또 어떤 교재에는 오역은 아니더라도 단어선택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문제가 있으며, 어떤 한 교재에는 직역이 많은 뿐더러 결구가 중국어식 조선말이 되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상술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일부 편자들의 번역수준이 낮은 외에도 번역교재의 번역 사업이 항상 창졸간에 끝나치게 되는데 에 큰 원인이 있다. 그 해결방도는 교재번역사들의 번역 수준을 높이는 것과 번역교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번역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고 교과수준도 높일 수 있다.

## 2) 언어사용에서 글말과 구두어가 일치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언어사용에서 글말과 구두어가 일치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구두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어 차용어를 음차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만 글말에서는 대부분 음역 혹은 의역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구두어에서 음차하여 사용하던 어휘도 글말에 와서는 음역하는 형식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초래하게 되었다.<sup>75)</sup>

## 3) 중국어와 조선어를 같이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조선족들을 비교해 본다면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언어를 들을 때는 의아했지만, 한국 사람이 중국말을 익히고 나면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중국어와 조선어를 혼합하는 일종의 신조어를 쓰게 된다. 실제로 조선족들 또한 중국어도 아니고, 조선어도 아닌 이러한 언어들 때문에 교류할 때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어의 성조발음과 표기기법 등을 그대로 조선어처럼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족들이 말 사이사이에 중국어 어휘와 발음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또한 혼란을 조성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국사람 들은 물론 조선족

---

75) 최란화, “중국어 영향에 의한 연변지역 한국어의변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49.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가 부모 및 형제들이 이러한 말을 쓴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또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러한 언어를 쓰게 된다면 조선족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의 언어들은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 쯔구 ( 照顧 ) 하다 ”, “ 싸발 ( 下班 )”, “ 전화를 치다 ( 打電話 )” 등등 과 같은 수많은 音借된 어휘 , 언어 표현들을 허물없이 사용하면서 조선족 아이들이 제 민족 어휘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렀다.<sup>76)</sup>

### (3) 향후 과제

중국에서 공민으로 살면서 중국어를 꼭 잘 배워야 한다는 분석과 판단은 올바른 선택이지만 중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 조선어를 꼭 버려야 한다는 판단은 그릇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언어란 서로 연결된 점이 많아 어느 한쪽의 언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꼭 어느 한쪽을 버려야 한다는 법칙은 없는 것이다.<sup>77)</sup>

향후 조선족의 거주 분포는 필연적으로 다양화될 것이다. 이를테면, 집단거주구역·분산거주구역과 조선족·한족의 혼합거주구역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여튼 집단거주구역도 좋고 분산거주구역도 좋다. 그러나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구역은 필연적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다. 때문에 조선족학교 운영방식도 다각도로 발전되어야 한다. 조선족 집단거주구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교육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분산거주구역은 촌·향·현은 연합하여 학교를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족 학교에도 민족교육학급의 설치를 늘려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기숙사 제도도 실시하여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및 일부 대도시의 조선족 학생은 한족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농촌의 조선족 학생들도 부근의 한족 학교에 입학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에 조선족이 유아교육에서 대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보통교육에서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정규교육에서 비정규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교육체제는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성인 기술

---

76) 최관화, 위의 논문, p. 49.

77) 흑룡강신문 2008.9.19서두내용.



교육, 직업교육, 재취업 훈련 등은 어차피 한족과 함께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sup>78)</sup> 그리고, 조선족은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만으로 일체감을 느낀다. 그런데 조선족의 도시화와 중국화가 계속되면 조선족 청년은 앞으로 조선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조선족 가운데 교육 수준이 높고 확실한 직업을 가지면서 전통적 유대 관계가 약한 연변 이외의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중국화하기가 쉽다. 조선족과 한족 사이에는 신체적, 종교적 차이가 없어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조선족 사회에는 한국 문화와 중국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많지 않다. 조선족 고등학교까지 다닌 사람은 중국어에 익숙하지 못하여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기가 어렵고 도시에서 한족 학교만 다닌 사람은 한글을 모른다. 예를 들면 하얼빈 시의 20세 이하 조선족 인구 중 70%가 조선어를 쓰거나 말할 줄 모른다고 한다. 조선족 문화를 계승 발전하려면 한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중국에서 살아가려면 중국 문화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문화를 완전히 이해해해야만 한국과 중국 양측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sup>79)</sup> 그러므로 조선족 사회가 건전한 이중 문화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조선족 집거지가 유지되도록 중국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와 조선족 사회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족이 연해 지구로 진출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와 조선족 사회는 청도·대련·북경·상해·천진 등 여러 도시에 새로운 조선족 집거지 형성을 적극 추진하여 조선족 문화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조선족 집거지가 많이 모인 중국 동북 3성에 적극 투자하고 환경과 교육 개선에 힘써 조선족 집거지를 유지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1) 교육발전 전략과 책략

(1) 조선족교육의 발전척도는 자치지방내의 타민족 교육과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민족교육과의 비교에 서 있다. 한민족과의 비교에서 보면 조선족은 소수라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으므로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남에게 떨어지게 되고 남과 같은 방법으로서는 사실상의 평등을 쟁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78) 설용수, 『재중동포 조선족이야기』 (미래문화사, 2004), pp. 87-88.

79) 김강일·허명철, 『중국 조선족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연변인민출판사, 2001), pp. 219-221.

평등하지 않는 특수한 조치와 획기적이고 진행 가능한 발전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조선족교육체계는 완전히 독립된 민족적실체로서가 아니라 민족성과 지방성의 결합체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급 각 유형교육의 정체적인 최적화를 도모하면서도 다른 민족의 교육우세를 충분히 이용하고 자신의 힘을 헤아리며 다른 민족의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 즉 다시 말하여 민족문화성격이 강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여 질적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민족교육의 특색을 보유하며, 성망을 높이는 과 동시에 교육에서의 민족응집력을 강화하여야한다.

(3) 민족교육열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에 대한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를 확보하면서도 가정, 학교, 사회의 결합형식으로 광범위한 여론, 설득 그리고 필요한 행정수단 등으로 입시위주교육 등 거듭되는 교육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교육이 오도됨을 방지해야 한다.

(4) 교육과학연구 강화. 전국교육의 발전추세와 세계교육의 발전케도에 맞추어 민족교육 개혁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심각한 이론문제와 실제문제에 대한 연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그 성과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남이 대신하여 해줄 수 없는 일로서 향후 중국조선교육발전의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 된다.

(5) 민족교육행정관리의 개선과 강화. 현재 진행 중의 각 지구 조선교육간의 합작은 교재합작에서 교육합작으로, 동북 3성 합작에서 전국범위내의 합작으로 확정 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통괄 할 수 있는 기구를 건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조선족의 교육의 기초가 되는 이중 언어 교육의 분야의 문제점들의 현상을 극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sup>80)</sup>

이제 조선어 교육과 언어교육수업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언어수업은 고·중학교와 직업학교부터 시작해 점차 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가며 조선어

---

80) 강영덕, “21세기를 향한 중국 조선족교육” 연변민족교육개혁판공실(1995) 참고.

에서 점차 중국어로 변화될 것이다. 조선족 학교에서의 언어수업은 단계별로 달리 하는 수업 형태가 될 전망이다. 처음 조선어 수업을 할 때에는 중국어 수업을 병행하고, 중국어수업을 할 때에는 조선어를 병행한다. 그렇게 되면 조선족 거주구역인 연변이나 목단강, 몽화 지역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분산거주 지역은 빨리 변천될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 하지 말고 조선족들의 의지에 따라, 그리고 현지실정에 따라 변화되어야하고, 인위적으로 성사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교과서나, 교사수준 등, 일련의 문제가 따르기에 오랜 과도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어수업에서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민족의식은 실제 생활에서 쉽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우리는 조선어학습이나 학원 등을 꾸려 우리말, 우리글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조선족 사범학교는 이미 그 기초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교재를 잘 이용해 조선족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범학교는 조선족의 교사들을 훌륭히 양성하는 외에도 일부 직업 기술반이나 성인 재취업 훈련반을 구성하여 조선족 청장년들의 취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조선족 농촌의 산업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과 길도 열어야 할 것이다.<sup>81)</sup>

---

81) 설용수, 위의 책 pp. 88-89.

## V. 결 론

이 연구는 조선족의 정체성과 이중 언어 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먼저 조선족 정체성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적이거나 조선족의 특성과 중국으로의 이주역사에 따른 형성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신분의 문제, 국적문제, 발전전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두 번째 핵심 부분인 이중 언어의 교육 발전과 형성 부분에서는 교육의 발전을 과정, 교육열, 교육의 위축 순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중 언어교육의 현상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았다.

중국은 주 민족인 한족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인원은 220만 명 정도이며, 이는 중국 소수민족 인구 중 13번째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정체성이란 앞에서 논한바와 같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조선족은 뚜렷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 왔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었을 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았으며, 또한 민족 평등과 권리 등 중국 국민도 누를 수 있는 똑같은 법률도 적용받았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외부와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조선족은 여러 민족들과 함께 반일 민족 통일전선을 결성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를 동북에서 몰아내는 것을 임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조선족들은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무장투쟁에도 적극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은 조선족들을 위해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성립 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족에게 안정된 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하여 조선족 정체성의 확립은 조선족들이 중국 국민으로 동일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동일시함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추진한 정책들은 조선족 정체성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몫을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족 이중 언어에 대한 연구 결론을 살펴보면, 조선족 교육은 형성초기부터 명확한 민족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교육의 특징은 중화 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민족 평등 정책 및 민족교육 방침·정책으로 보존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그 특징을 결론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중 언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조선족 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두 번째, 조선족민족문화를 교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 조선족 교육은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 번째, 조선어 교재를 자체로, 편집 출판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 번째, 학교분포의 분산성과 분포지역의 변원성의 특징이 있다.

여섯 번째, 조선족 교육은 국제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중국과 한국은 정치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시점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어왔다.

조선족은 중국내의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하며, 한국인 또한 조선족의 언어를 타민족 언어의 방언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이지 말고, 처음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의 언어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 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왕득신(1987) 《연변조선족교육사》, 연변인민출판사.
- 박규찬(1991) 《중국 조선족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박아청(1993) 《아이덴티티의 世界》 교육과학사.
- 박창욱(1993) 《중국 조선족의 역사와 금후 전망》 『한민족공동체』  
해외민족연구소.
- 이광규(1994) 《재중한인》 일조각.
- 최상록·지청산·김룡철(1995) 《중국 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연변대학출판사.
- 김종국(1996) 《중국 조선족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1996) 《세계의 한민족:중국》 통일원.
- 정관룡(1996) 《세계속의 우리민족》, 심양요녕민족출판사.
- 김인영·김왕식(1996) 《중국 조선족의 사회 발전과 한·중관계의 위상》 집문당.
- 황유복(1996) 《21세기를 지향하는 중국 조선족의 교육》,  
아세아문화연구 제1집, 민족출판사.
- 최홍빈(1997) 《중국 조선족의 어제와 오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10호.
- 조을호·박문일(1997) 《21세기로 매진하는 중국 조선족 발전방략연구》  
심양요녕민족출판사.
- 최홍빈(1997) 《중국 조선족의 어제와 오늘》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학교출판사.
- 김병호(1997)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 서울학고방.
- 김강일·허명철(2001) 《중국 조선족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연변인민출판사.
- 연변사회과학연구소편(2002) 《중국 조선족의 역사·문화 산책》

- 허 길(2002) 《중국 조선족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반성》, 경북대학교  
재외동포연구소, 재외동포연구소 제14회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 임계순(2003)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주)현암사.
- 설용수(2004) 《재중동포 조선족이야기》, 미래문화사.
- 채휘균(2006) 《조선족 교육의 형성과정과 현안문제 고찰》 교육철학 제29집.
- 공봉진(2006) 《중국 조선족에 대한 정책변화가 조선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문화연구』 제18집 부산외국어대학비교문화연구소.
- 이진산(2006)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  
목단강: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곽승지(2008) 《동북아시아 시대의 연변과 조선족》, (주) 아이필드.

<논문 및 보고서>

- 김항원(1990) “제주도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홍은화(1995)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 : 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은태(1997) “중국 조선족의 우리말 교육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재식(2000)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 최우길(2000) “중국 조선족, 그리고 우리의 정책”, 『정세와 정책』 제 4호.
- 이인순(2000) “중국 조선족에 대한 교류 지원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리홍우(2000), “중국민족관계의 발전추세와 조선족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연변대학출판사.  
“중국 조선족 현 상태 분석 및 전망연구”, 연변대학출판사.
- 박윤조(2000), “在中 朝鮮族의 二重言語現象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용찬(2001), “중국 조선족 동포의 삶과 민족경제”, 목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
- 조운덕(2001)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과 교육”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능실(2001) “재중국 조선족연구”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남연주(2003)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조선족을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지영(2003) “중국 조선족 정체성 변화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옥(2004)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지위와 역할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리상우(2007), “개혁기 중국 조선족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구심력과 원심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
- 김해란(2009) “중국과 한국의 조선족정책이 조선족정체성에 미친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일화(2009) “중국 조선족 대학생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란화(2010), “중국어 영향에 의한 연변지역 한국어의 변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